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7.30~2026.08.05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추경(감액), 위성곤(민선), 기후경제(부지사), 국비, 유네스코
경제·관광	관광객(외국인), 항공, 미분양(주택), 탐나는전, 수출(싱가포르)
지역·사회	폭염(열대야), 태풍, 원헨(바이에른), 어선, 구조(이송)

※ 분석 기간 : 26.07.30.~26.08.0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추경 (감액)	- 민선 9기 첫 추경 8조4747억 확정 - 버스 준공영제 등 195억 감액 조정 - 추경 70% 3개월 내 신속 집행 방침
	위성곤	- 민선 9기 첫 행정시장 인선 논란 - 도-국회의원 당정협의회 정례화 - 제주~칭다오 항로 새 계약 추진
	기후경제 (부지사)	- 초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명 - 부지사·시장 인사청문회 8월 말 전망 - 조직개편 확정...기후경제 도정 시동
	국비	- 2027년 국비 2조4576억 확보 총력 - 고수온 피해 대응 국비 3억 편성 - 하반기 전기차 1880대 민간보급
	유네스코	- 세계지질공원 4번째 재검증 심사 - 세계자연유산 콘퍼런스 유치 제안 - 지질자원 관리로 '기후경제수도' 비전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관광객	- 제주 관광객 석 달 연속 감소 - 고유가에 관광 소비 위축 - 미식·세대공감 관광 프로그램 확대
	항공	- 유류할증료 9월 재인상…부담 가중 - 제주항공 2분기 매출 역대 최대 - 기단 현대화·노선 지원 확대
	미분양	- 미분양 주택 2909호 역대 최대 - 주택구입 부담 전국 평균 상회 - '빚투'에 기타가계대출 급증
	탐나는전	- 탐나는전 10% 캐시백 7일 재개 -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124건 확정 - 전세버스 종사자에 탐나는전 지급
	수출	- 제주 축산물 수출 232만 달러 돌파 -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3곳 추가 - 제주산 저당 고추장 해외 진출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폭염	- 7월 폭염일수 역대 1위 기록 - 온열질환·벌쏘임 등 피해 속출 - 전력사용량 역대 최고…생활 영향
	태풍	- 제13호 태풍 '돌핀' 북상 촉각 - 해경·소방 태풍 대비 선제 대응 - 태풍 간접영향 한 달 만의 단비 기대
	원헨	- 제주-원헨전 2만2519명 최다 관중 - 유소년 GK 허재원, 원헨 이적 - 2만 관중 흥행 속 운영 미흡 지적
	어선	- 차귀도 해상 어선 충돌…16명 경상 - 구명조끼 의무화 후 첫 단속 적발 - 참조기 금어기 종료…조업 본격화
	구조	- 폭염 속 물놀이 사망사고 잇따라 - 너울성 파도에 카약 전복…3명 구조 -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가동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7월 30일~8월 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052건임
 - 정치·행정 분야 370건, 경제·관광 184건, 지역·사회 498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추경(감액), 위성곤(민선), 기후경제(부지사), 국비, 유네스코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추경 (감액)	- 민선 9기 첫 추경 8조4747억 확정 · 제주도의회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편성한 8조474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4615억 원을 증액해 소상공인·상권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확정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 규모를 놓고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수 변경까지 가는 진통 끝에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본회의 의결 직후 위성곤 지사가 의회가 조정한 추경안에 동의하고 신속 집행 방침을 밝힘.
-------	------------	--

정치·행정	추경 (감액)	- 버스 준공영제 등 195억 감액 조정 · 도의회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수소 생산 인프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운영 손실 비용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읍·면·동 도로·인도·배수로·공원 정비 등 생활 SOC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총 194억8257만 원의 쓰임새를 조정함. · 공약 사업 예산 일부 감액에 대해 위성곤 지사는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감액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지역사업으로 재배분되면서 생활 기반시설 정비가 확대되는 등 민생 체감형 예산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 추경 70% 3개월 내 신속 집행 방침 · 위성곤 지사는 추경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8월부터 민선 9기 도정의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히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3개월 이내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고, 소상공인·1차산업·건설 현장에 확보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임.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 재개와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건설 분야 440억 원 조기 발주, 고유가·인력난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위성곤 (민선)	- 민선 9기 첫 행정시장 인선 논란 · 위성곤 지사가 민선 9기 첫 제주시장 후보로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하고 서귀포시장은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도정을 견제 하던 대의기관 수장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데 대한 반발 기류가 도의회 내부에서 확산됨. · 위성곤 지사는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행정시장 공모제가 무의미하다며 공모 없이 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공모 절차와 배치되는 발언이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함. - 도-국회의원 당정협의회 정례화 · 제주도가 4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입법·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민선 8기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불통 논란을 넘어 월 1회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함. · 위성곤 지사는 5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도민 생활 현안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처리를 건의함. - 제주~칭다오 항로 새 계약 추진 · 위성곤 지사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자 운항에 따른 혈세 낭비와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논란이 제기된 제주~중국 칭다오 무역항로에 대해 전임 도정이 체결한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함. · 새 협정에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 원 미만으로 줄여 재정 부담을 덜고 중앙투자심사 절차 이행 문제도 해결한다는 구상이며, 운항 횟수 축소 등이 전망되는 가운데 항로 운영을 둘러싼 논란 해소 여부가 주목됨.

정치·행정	기후경제 (부지사)	- 초대 기후경제부지사 이창흠 지명 · 위성곤 지사가 31일 정무부지사에서 명칭과 기능이 개편된 민선 9기 초대 기후경제부지사 후보로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지명했으며, 제주시장 후보로 이상봉 전 도의회 의장을 함께 발표하고 서귀포시장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하기로 함. · 서귀포시 출신인 이창흠 지명자는 환경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실 기후환경 비서관을 지낸 기후·환경 정책 전문가로, 신설된 기후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도정 핵심 직위로서 역할이 기대됨. - 부지사·시장 인사청문회 8월 말 전망 ·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와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번 주 내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광복절 이후인 8월 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전망이다. 청문 결과를 거쳐 8월 중 임용 여부가 결정됨. · 이상봉 후보자는 도의회 의장 출신의 행정시장 이동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이창흠 후보자는 전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 근무 이력이 청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자의 청문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 조직개편 확정…기후경제 도정 시동 ·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후경제부지사 신설과 함께 도지사 정책보좌를 위한 4·3인권특보가 전문임기제로 신설되었으며, 국·과장 직위 4개 축소 등 조직 효율화도 병행됨. · 위성곤 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심사위원 면담에서 지질 자원 관리를 강화해 제주를 대한민국 기후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난방 전기화 사업 1호 설치 현판식을 여는 등 기후경제 정책을 본격화함.
	국비	- 2027년 국비 2조4576억 확보 총력 · 제주도가 지난달 31일 도청 삼다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2조4576억 원 달성 계획을 논의함. ·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50개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반영 대응 계획을 점검했으며, 당정협의회 정례회 등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토대로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총력 대응할 방침임. - 고수온 피해 대응 국비 3억 편성 · 문대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기존 예산 76억 원 외에 18억 원을 추가 전용했으며, 이 가운데 3억 원이 제주지역에 편성되어 양식장 고수온 피해 어가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임. · 문 의원은 재해보험 미가입 어가에 대한 재난복구비 현실화를 요청하는 한편, 기후위기로 여름철 고수온·가뭄 피해가 연중 반복되는 복합재난으로 바뀌고 있다며 제주를 기후변화 대응 농업 복합재난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

정치·행정	국비	을 제기함. - 하반기 전기차 1880대 민간보급 · 제주도가 6월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에 승합차 80대, 이륜차 200대를 더해 총 1880대 규모임. · 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980만 원에 추가 지원이 더해지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접수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임.
	유네스코	- 세계지질공원 4번째 재검증 심사 ·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증 현장 심사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제주 전역에서 진행되었으며, 4년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제주는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임. · 심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 카를로스 네토 데 카르발류와 루친페이가 성산일출봉 등 주요 지질명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와 12월 유네스코 총회를 거쳐 연내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세계자연유산 콘퍼런스 유치 제안 · 위성곤 지사가 3일 도청 집무실에서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을 만나 4대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타이틀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모두 보유한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콘퍼런스의 제주 개최를 본부에 제안함. · 아소모 센터장은 제주가 세계유산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수 장소라며 매우 강력하고 뜻깊은 제안이라고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고, 제주올레의 유산 가치도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등 국제 콘퍼런스 유치 기대감이 높아짐. - 지질자원 관리로 '기후경제수도' 비전 · 위성곤 지사가 3일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심사위원 면담에서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주민 상생을 강조하며 지질 자원 관리를 강화해 제주를 대한민국 기후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어, 재검증 통과와 국제 콘퍼런스 유치가 성사되면 자연유산의 보전·활용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경제·관광	관광객 (외국인)	- 미식·세대공감 관광 프로그램 확대 ·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미국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수셰프 출신 송훈 셰프와 함께하는 참여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 제주미(味)행 특별 회차를 13일 운영해 동문시장 투어와 몸국 만들기 등 제주 식문화 오감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 과거 제주 신혼여행의 추억을 자녀 세대와 함께 되살리는 세대 공감형 로맨틱 제주 투어가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운영되었고,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는 제주 로컬브랜드 10여 곳이 팝업스토어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외 시장성을 검증함.
	항공	- 유류할증료 9월 재인상…부담 가중 · 두 달 연속 하락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9월 다시 인상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나 업무 등으로 육지를 오가는 제주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항공 공급좌석 감소와 맞물릴 경우 휴가철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던 여행 수요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7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에서도 국내항공료가 16.9% 상승해 경유와 함께 도민 생활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제주항공 2분기 매출 역대 최대 · 제주항공이 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매출 441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 3154억 원 대비 40% 증가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으며,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1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함. ·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여파로 2분기 영업손실은 524억 원으로 확대되어,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가·환율 변동성 관리와 수익성 개선이 하반기 경영 과제로 제시됨. - 기단 현대화·노선 지원 확대 · 제주항공이 지난 1일 차세대 항공기 B737-8 13호기를 구매 방식으로 도입해 보유 여객기 가운데 구매기가 15대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신형 항공기 2대를 추가 확보해 기단 현대화에 속도를 낼 계획임. · 한국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10월 24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인천~제주 노선 무료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 중으로, 탑승률 88%대의 안정적인 실적 속에 외국인의 지방 이동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미분양 (주택)	- 미분양 주택 2909호 역대 최대 ·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2909호로 전월 대비 105호(3.7%) 늘어 2024년 11월 2851호 이후 19개월 만에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으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함. · 청약 부진과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심리가 7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시장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택구입 부담 전국 평균 상회 ·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국

경제·관광	미분양 (주택)	평균을 웃돌았으며,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급등한 가격에 비하면 하락 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 완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임. - '빚투'에 기타가계대출 급증 ·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5월 기타가계대출이 이른바 빚내서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내 증시 상승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투자 자금을 대거 마련한 영향으로 풀이됨. ·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대출금리 부담도 남아 있어, 부동산 침체와 맞물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탐나는전	- 탐나는전 10% 캐시백 7일 재개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캐시백 적립이 8월 7일 0시부터 재개되며, 제주도가 도의회와 협의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캐시백 적립 재원 266억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데 따른 조치임. · 캐시백은 카드나 QR코드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70만 원 한도로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며, 적립률과 한도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위축된 지역 소비와 골목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124건 확정 · 제주도가 5일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열고 탐나는전·먹깨비 연동, 청각장애인 소통·쉼터 마련 등 출범 타운홀미팅에서 접수된 도민 정책 제안 124건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진 방안을 점검함. · 도민제안은 관광·문화·체육 분야가 많았으며, 배달앱과 지역화폐 연계 등 생활 밀착형 제안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도민 편익 증진 효과가 기대됨. - 전세버스 종사자에 탐나는전 지급 · 제주도가 급등한 유류비와 인력난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도내 전세버스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원과 사무직 종사자에게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시행하며, 유류비 부담과 종사자 이탈 문제 완화를 도모함. · 제주보건소의 걷기 챌린지 고닥고닥 건당보민도 월별 챌린지 목표 달성자 전원에게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등 지역화폐가 민생 지원과 건강 증진 정책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며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뒷받침함.
	수출 (싱가포르)	- 제주 축산물 수출 232만 달러 돌파 ·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산 축산물 수출 실적이 130.3t, 231만8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67.2t, 131만5000달러를 이미 넘어 76.27% 증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축산물 수출액을 기록함. ·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급증이 실적을 견인했으며, 지난해 12월 제주항에서 첫 수출 기념 선적식을 가진 이후 싱가포르 시장에서 제주산 축산물의 입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경제·관광	수출 (싱가포르)	- 싱가포르 수출작업장 3곳 추가 ·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작업장으로 축산물 가공장인 혼디축산, 제주드림포크, 삼다 3곳이 싱가포르식품청(SFA)에 추가 등록되어 수출 물량 확대 기반이 마련됨. · 제주도는 수출작업장 확대를 계기로 제주산 축산물의 싱가포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안정적인 물량 공급 체계를 토대로 프리미엄 축산물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제주산 저당 고추장 해외 진출 · 제주 기업 로칼로우가 제주산 마늘 등을 사용한 저당 고추장 핫탭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건강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 흐름에 맞춘 저당 K-소스로 해외 소비자 공략에 나섬. · 축산물 수출 호조에 이어 제주산 원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해외 진출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주 농식품 수출 품목 다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내수 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된 도내 제조업의 활로로 수출 확대가 주목됨.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폭염(열대야), 태풍, 뮌헨(바이에른), 어선, 구조(이송)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폭염 (열대야)	- 7월 폭염일수 역대 1위 기록 · 제주지방기상청의 2026년 7월 제주도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4개 지점 평균 폭염일수는 6.5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고, 제주 북부는 15일에 달해 한 달의 절반이 폭염이었으며 평균기온은 27.4도로 역대 4위를 기록함. · 장마철임에도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반면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입추를 앞두고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져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됨. - 온열질환·벌쏘임 등 피해 속출 · 폭염이 이어지며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던 70대가 의식 혼미 증상을 보이는 등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7월 31일 하루에만 제주지역에서 온열질환 의심 신고 4건이 접수되는 등 야외 작업자와 해수욕장 이용객의 피해가 잇따름. · 폭염으로 벌의 개체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벌쏘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최근 5년간 벌집 제거 출동 1만1606건, 벌쏘임 부상자 292명 가운데 8월 부상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전력사용량 역대 최고...생활 영향 ·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사용이 폭증하고 여름 성수기 관광객 증가까지 겹치면서 제주지역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도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폭염에 따라 K리그1 22라운드 전 경기의 킥오프 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했으며, 제주지방기상청은 김녕해수욕장에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폭염 특별관측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폭염 대응이 전방위로 확산됨.
	태풍	- 제13호 태풍 '돌핀' 북상 촉각 ·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제13호 태풍 돌핀이 북상하면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10일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보되어 제주 영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 태풍은 5일 오후 기준 오키나와 동쪽 약 940km 해상에서 시속 15km로 북서진 중이며 중심기압 965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초속 37m의 강도 3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더라도 남쪽 먼바다 중심의 간접 영향이 예상됨. - 해경·소방 태풍 대비 선제 대응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전국 화상회의를 열어 조업 어선 피항과 정박 선박 점검에 나서고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침수·붕괴 우려지역 예찰을 강화하는 등 태풍 내습에 대비한 선제 대응 태세에 돌입함.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과 유선,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소방당국은 풍수해 취약지역 4개소 현장점검과 소방차량·수방장비
	태풍	

지역·사회		대응태세 점검을 마치는 등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함. - 태풍 간접영향 한 달 만의 단비 기대 · 마른 장마 이후 비 소식이 없던 제주지방에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한 달 여 만에 일요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농작물 파종 차질을 빚어온 극심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됨. · 태풍이 이번 주말 폭염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기상당국은 태풍 경로에 따라 무더위 완화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지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5~10mm 안팎의 소나기 가능성도 전망함.
	원헨 (바이에른)	- 제주-원헨전 2만2519명 최다 관중 · 제주SK가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서밋 2026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원헨에 2-1로 패했으나, 공식 관중 2만2519명으로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제주월드컵경기장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움. · 김민재와 노이어 등 26명의 원헨 선수단이 2일 전세기로 입도해 제주국제공항에 팬들이 운집했고, 오픈 트레이닝과 레전드 팝업스토어 방문 등 부대행사가 이어지며 폭염 속에서도 서귀포 일대가 축구 열기로 가득함. - 유소년 GK 허재원, 원헨 이적 · 제주SK 산하 유소년 출신 18세 골키퍼 허재원이 바이에른 원헨으로 임대 이적하며 한국 골키퍼 사상 최초로 유럽 빅리그에 직행하는 기록을 세웠고, 2027년 1월까지 6개월간 임대 활동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완전 이적 조항도 포함됨. · 원헨전 하프타임에 공식 입단식이 진행되었으며, 도민 구단 유소년 시스템이 배출한 선수가 유럽 명문 구단에 진출하면서 제주 축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육성 체계의 성과가 주목받는 계기가 됨. - 2만 관중 흥행 속 운영 미흡 지적 · 경기 당일 게이트 혼잡 속에 신분증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좌석 이중 예약과 경기장 동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대형 이벤트 운영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콤파니 감독 기자회견 중 취재진 퇴장 요청 소동도 발생함. · 서귀포 유료 관중 첫 2만 명 돌파라는 흥행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기 운영 체계의 개선 과제가 확인되면서, 향후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안정적 유치·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와 관중 관리 시스템 보완이 요구됨.
	어선	- 차귀도 해상 어선 충돌...16명 경상 · 3일 오후 10시 23분쯤 제주시 차귀도 북쪽 5.4km 해상에서 8.5t급 낚시어선과 29t급 어선이 충돌해 승선원 1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소방당국이 환경면 신창항에 임시의료소를 운영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음. · 경상자 16명은 임시의료소에서 상태 확인 후 자진 귀가했으며, 야간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성수기 해상 레저·조업 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구명조끼 의무화 후 첫 단속 적발

지역·사회	어선	· 지난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첫 단속 사례가 나왔으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이 2일 항공 순찰 중 애월항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어선 2척을 적발함. ·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경은 헬기를 활용한 항공 단속과 어업인 대상 홍보를 병행해 해상 인명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임. - 참조기 금어기 종료…조업 본격화 ·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인 참조기 금어기가 종료됨에 따라 추자도 인근해와 소흑산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조업이 8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금어기 동안 오징어, 고등어 등 다른 어종으로 대체 조업을 해온 유자망 어선들이 참조기 조업을 재개하는 만큼 어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자원 회복 조치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의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짐.
	구조 (이송)	- 폭염 속 물놀이 사망사고 잇따라 ·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2일 서귀포시 보목포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숨지고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코난해변에서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말 사이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름. · 지난달 31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포구 방파제 앞에서 수영하던 관광객 5명이 테트라포드를 오르지 못해 119에 구조되는 등 해안가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구역 접근 자제가 요구됨. - 너울성 파도에 카약 전복…3명 구조 · 4일 오전 11시 11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인근 해상에서 카약 1대가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에 전복돼 탑승자 3명이 표류했으나 인근 어선과 해경 구조정의 도움으로 전원 무사히 구조됨. · 여름철 해양 레저활동 인구가 늘면서 급변하는 기상에 따른 전복·표류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해경은 레저활동 전 기상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연안 순찰과 구조 대응 태세를 강화함. -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 가동 · 양막이 파열된 24주차 임신부가 제주소방 헬기 한라매의 정기검사로 운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소방청 운항관제실의 조정을 거쳐 부산소방 헬기로 부산 소재 종합병원에 긴급 이송되는 등 도외 응급 이송 체계가 가동됨. · 서귀포해경은 우도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3세 남아를 한밤중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성산항까지 긴급 이송했으며, 섬 지역 특성상 야간 응급환자 이송 수요에 대응하는 소방·해경 협력 응급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